

2019년 6월1일부터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과태료 1천만원 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19.6.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입니다.

'19.6.1일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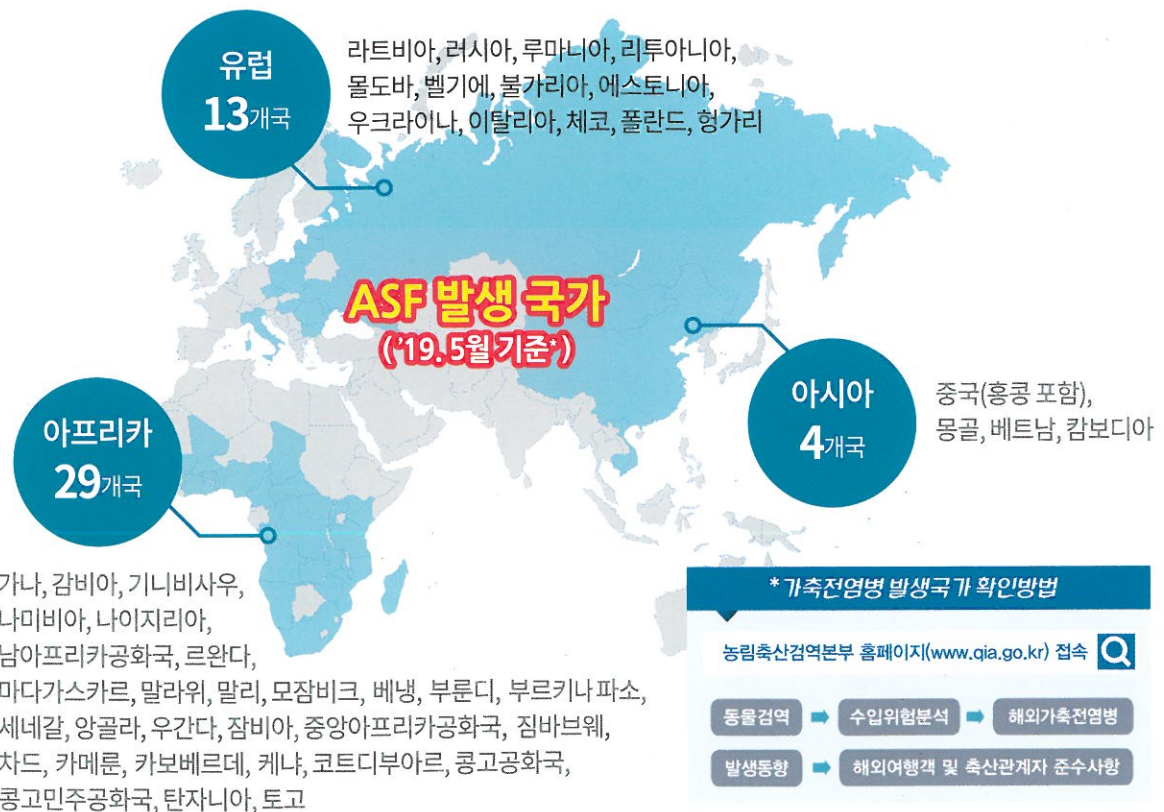
해외여행자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상향

-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총 46개국 :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개국, 러시아 등 유럽 13개국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



-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 ①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②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9.7.1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 감액**
- 가축평가액 **20%를 감액**하는 경우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과 관련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 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기준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과태료 기준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농가 보호 강화

-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
 - *'17년도 통계청 농가소득통계 : 전국평균가계비 255만원,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13만원(차이 58만원)



'19.7.16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상담치료 이외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부담**
 -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



